

네이버 뉴스 댓글을 활용한 '비혼출산'에 대한 감성분석 Sentiment Analysis on 'Non-maritalism Childbirth' Using Naver News Comments

허세영*, 김초원**, 정안용***, 이새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경희대학교 빅데이터연구센터****

Seyoung Huh(seyoung723@snu.ac.kr)*, Cho-Won Kim(vjldve@naver.com)**,
Anyong Cheong(anyong@khu.ac.kr)***, Sae Bom Lee(spring@khu.ac.kr)****

요약

한국 사회에서 결혼가치관의 변화, 비혼 만연 현상과 더불어 비혼출산이라는 새로운 가족 구성의 형태가 나타났고, 출생률 감소 문제와 결부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혼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감성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인의 비혼출산 사실이 알려진 2020년 11월 16일부터 최근 2021년 8월 16일까지 비혼출산에 관한 뉴스기사 댓글을 이용해 감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방송인의 비혼출산 사실이 알려진 사회이슈기에는 긍정적인 댓글이 다수인 반면, 정부여당이 정책적 검토를 시작한 정책의제기부터 정책결정기까지는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였다. 단어 동시출현빈도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댓글에는 전통적 가족규범 측면, 정책적 측면, 개인적 측면의 인식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혼출산 이슈가 정책의 제화 이후 정책결정과정 동안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였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비혼출산 | 댓글 | 감성분석 | 감성사전 | 동시출현네트워크 |

Abstract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values of marriage and the prevalence of non-marriage in Korean society, a new form of family composition called unmarried birth or non-maritalism childbirth has appeared, and social discussion in taking place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 of a decrease in the birthrate. Using sentiment analysi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his research explored how the people's sentiment and perception has changed toward 'nonmarital birth.' The data used is comments on news articles from the period of November 2020 to August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a lot of positive comments during the social issue period by marriage, whereas there were many negative comments from the policy agenda to the policy making period. As a result of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the topic of family norm, policy, and personal aspect appear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at negative perceptions prevailed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fter the issue of unmarried births after the issue of unmarried births, and it became a cornerstone of social discussion on unmarried births

■ keyword : | Non-maritalism Birth | Sentiment Analysis | Sentiment Dictionary | Co-occurrence Network |

*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DB산업육성(데이터 청년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2021년 데이터 청년 캠퍼스 프로젝트 결과물이며,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3855)

접수일자 : 2021년 09월 30일

수정일자 : 2021년 11월 22일

심사완료일 : 2021년 11월 22일

교신저자 : 이새봄, e-mail : spring@khu.ac.kr

I. 서론

최근 대한민국의 결혼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된다[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20년 16.8%였으며,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비혼'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고 있다. 비혼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미혼이라 칭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다[3].

비혼과 관련하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은 최근 한 여성 방송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4]. 이처럼 비혼여성이 출산한 사례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2020년 통계청[2]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0.7%로, 이러한 응답 비율은 4년 전 보다 6.5%p, 2년 전 보다 0.4%p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응답이 69.3%p로 우세하고,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3.1%로 동의하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도 남성의 75.0%, 여성의 76.2%가 혼외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5]. 반면 2020년 12월에 행해진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출산에 대해 찬성의견이 57%, 반대의견이 43%로 여전히 찬반의견이 대립하지만 찬성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6]. 이윤경 외(2020)의 연구에서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많은 반면, 혼자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은 24.2%로 두 번째로 많았다[7]. 이처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지만, 표본 설문조사라는 한계로 인해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비혼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점, 결혼패턴의 변화가 사회경제적 상황, 문화규범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문제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8], 저출산 문제와도 연

계되면서[7] 비혼 및 비혼모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르는 결혼가치관의 변화[9-11]와 정부 및 정치권의 비혼출산에 대한 정책의제화 현상을 보면, 비혼출산을 부정적·예외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비혼동거·출산 등에 대한 사회인식이 빠르게 바뀌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12].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 개념 자체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이처럼 '비혼출산'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 없이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및 인구변화 대응방향에 포함되어 정책결정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현대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주 보이는 양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혼출산' 가정에 대한 이슈는 앞서 언급한 통계조사 결과와 같이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며,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쟁점 및 각 입장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혼출산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찬반 양론의 쟁점과 입장은 무엇인지를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 대중은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13-15], 댓글은 여론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6]. 이에 따라, 비혼출산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추론하는 지표로서 기사 댓글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갖는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제도권 내에 포용하는 데에 필요한 성숙한 사회적 논의의 초석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비혼출산'의 정의

여성주의적 의미로서 '비혼'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가부장적인 가족질서로부터 하나의 여성을 개인으로서 세우려는 여성주의 운동의 정치적 기획이었다[17].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비혼'이라는 용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결혼을 정상 상태로 간주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비혼'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중화되고 있다[18].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비혼을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의미[19][20]로 보는 경우와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선언적 의미[3]로 보는 경우가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비혼모란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자”를 말한다. 나아가 자발적 비혼모란 “독신주의자이면서 애인과 정자은행을 통하여 아이는 낳아 기르는 현대판 신여성으로 가부장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호적과 성을 사용하는 여성”을 의미한다[21]. 여기에 '비혼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만연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방송인이 정자기증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비혼과 비혼모라는 용어가 객관적 의미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비혼출산' 역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출산이라는 객관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또는 김영신(2011)의 정의를 활용하여 '독신주의자이면서 애인과 정자은행을 통하여 아이는 낳아 기르는 여성'의 자발적 임신과 출산이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도 있다[21].

본 연구는 한 방송인의 정자기증을 통한 임신과 출산 행위로 발생한 사회적 이슈인 '비혼출산'을 주제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혼출산'은 자발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여성의 정자 기증을 통한 자발적인 임신 및 출산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비록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비혼' 및 '비혼출산'이라는 용어는 자발성과는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 및 정치권의 정책발표 시기와, 그와 결부되는 발언을 통해서 방송인의 '비혼출산' 이슈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인의 비혼출산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정

부 및 정치권의 비혼출산 가정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성의 정자 기증을 통한 자발적인 임신 및 출산”이라는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비혼 및 자발적 비혼모에 관한 연구

비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비혼을 선택하게 된 영향요인[3][8][11][18][20][22-26]과 비혼 여성의 삶의 태도에 대해 연구[19][26-31]가 존재한다.

선행 연구들은 비혼이라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 저출산의 원인 또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비혼을 고찰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이들을 다양한 삶의 양식 중 하나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비혼을 선택한 여성 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연구하고 있어 비혼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들 중 드물게 비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최효미 외(2016)는 결혼 의향에 따라서 비혼에 대한 견해가 긍정과 부정으로 극명히 구분되었음을 밝혀내었고[10], 이윤경 외(2020)는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하는 것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해도 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는 점에서 비혼 입양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명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7]. 그러나 두 연구 모두 표본 설문조사를 이용한 양적연구로 진행되었다. 이에 근본적으로 표본 대표성 문제를 띄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개별 심층 면담을 이용하거나[21][26], 다큐멘터리를 통한 2차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여[32] 자발적 비혼 및 출산과 양육의 주체로서 여성을 조명하고 있다. 자발적 비혼모의 삶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이러한 선택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 자발적 비혼모로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편견적 시선의 개선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비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다양한 통계자료[2][5-7]에서도 비혼출산 및

입양에 대한 찬반 비율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마다 상이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으며, 찬반양론의 쟁점과 이슈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텍스트마이닝 연구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해 특정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한 연구는 대학에 대한 선호도 분석[33], 실시간 장소추천 시스템 개발[34], 공간감성이 사전 구축을 위한 장소 선호도 산출식 제안[35] 등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해 비혼 등 '친밀한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과 감정에 관한 논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뉴스 기사에 관한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연구[15]도 있다. 그러나 친밀한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에는 결혼, 비혼, 이혼, 재혼, 출혼 등의 다양한 자발적/비자발적 파트너십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혼이라는 특정 사회현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족관련 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이슈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비혼과 비혼출산 정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관련 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성분석을 활용해 댓글에서 시기별로 나타나는 대중들의 감정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댓글 상 논의의 흐름을 단계적 정책과정 시기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비혼출산 관련 대중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성분석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으로도 불리며, 특정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하는 기법이다[36]. 데이터 수집은 파이썬(Python)을 이용하였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비혼'을 키워드로 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털사이트이며, 댓글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림 1]과 같이 한 방송인의 비혼출산이 이슈가된 시점 이후 비혼출산 보도

량이 많아지는 시기를 선택하여 수집하였다. 이 중 연예기사와 스포츠 기사를 제외하고 본문에 '비혼출산' 및 '비혼모'를 포함하는 941개 뉴스 기사들에 달린 48,700여개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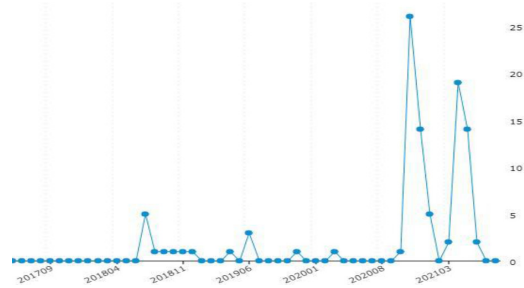


그림 1. 비혼출산에 대한 뉴스기사 보도량

데이터 전처리는 총 48,700여 건의 댓글 데이터라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처리속도가 빠르고 띄어쓰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R의 RmecabKo 패키지를 기반으로 형태소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먼저 숫자와 영문, 한자, 특수문자는 제거하였다. 그리고 품사를 기준으로 pos함수를 사용해서 품사별로 구분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단어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빈도수 상위 150개 단어들을 기준으로 불용어 처리 및 단어 통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처리 작업내용과 전후 데이터 예시는 [표 1]과 같다. 데이터 전처리 결과 최종 활용된 텍스트 수와 단어 수는 [표 2]와 같다.

표 1. 전처리 전후 데이터 예시

작업내용	전처리 전	전처리 후
축약어 통일	여성가족부, 여가부	여성가족부
어근 동일화	키울, 키워, 키운	키우다
	부러우, 부러워, 부럽	부러운
유의어 통일	애완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
	양육, 육아	양육
지시어 통일	일본, 니네나라, 너네나라	일본

표 2. 데이터 전처리 후 최종활용 댓글 수

구분	'20. 11	'20. 12	'21. 01	'21. 02	'21. 03	'21. 04	'21. 05	'21. 06	'21. 07	'21. 08
댓글 수	25,490	2,511	1,612	276	5,629	9,062	1,651	1,402	755	230

2. 감성사전 재정립

감성어휘는 맥락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한국어 감성분석을 위해 많이 활용되는 KNU감성사전은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감정표현, 즉 ‘감동받다’, ‘감사하다’ 등 보편적인 긍정표현과 ‘그저 그렇다’, ‘도저히 ~수 없다’ 등 보편적인 부정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맥락에서 ‘비혼출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어휘에 대해서는 감성사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감성사전 재정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명사·동사·형용사 빈도수 상위 단어를 각각 100여개씩 추출하였다. 이후, 상위 빈도수 단어들에 해당하는 댓글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하여 댓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비혼출산을 각각 찬성, 반대하는 입장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비혼출산을 찬성하거나 기존 전통적 가족규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에는 비혼 및 비혼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긍정점수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유교’, ‘조선시대’, ‘가부장’ 등의 단어는 비혼출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긍정하고, 전통적 가족규범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긍정 점수를 부여하였다. 반대로 ‘섭리’, ‘자연’, ‘순리’ 등의 단어는 비혼출산이 인공적이고 전통적 가족규범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부추기다’, ‘세뇌하다’, ‘조장하다’ 등 부정적 어조가 담긴 단어들 중 KNU감성사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해 부정점수를 부여했다. 이 외에 새로운 감정점수를 부여한 단어들과 실제 댓글에서 사용된 예시는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신조어를 추가하였다. 여혐, 남혐, 레즈비언, 게이, 한남(피해자) 코스프레, 헬조선, 폰대 등과 같이 댓글에서 자주 나타난 혐오표현들은 Rmecab 형태소 분석기 사용자 사전에 추가 후 점수를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점수는 재정립된 감성사전을 기반으로 댓글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의 점수 합에서 0을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는 중립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사유리의 용기있는 결

단에 박수를 보냅니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형태소 분석적으로 ‘사유리’, ‘용기’, ‘결단’, ‘박수’, ‘보내다’로 나뉘고, 용기와 박수에 각각 긍정점수가 부여되어 있어 긍정문장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자식이 장난감이나 왜 당신이 한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나?”라는 문장의 경우, 장난감에 부정점수가 부여되어 있어 부정문장으로 분류되었다.

3. 시기구분

Cobb & Elder(1976)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의 단계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37]. 먼저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사회적 이슈(social issue)가 되고, 시민 다수가 논의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공공의제(public agenda)단계를 지나,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한 문제로서 채택하면 정책의제(policy agenda)가 된다. 즉, 사회문제, 사회이슈, 공공의제, 정책의제의 단계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의 논의와 함께 정부 개입의 필요성 추창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하고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정책형성과정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비혼출산’에 대한 이슈와 정책의제화 과정은 이들이 설명하는 정책의제설정과는 괴리가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곧바로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책의제설정과정 중 “사회적 이슈”, “정책의제설정” 단계의 구분시점으로 차용할 수 있다. 즉, 방송인의 비혼출산을 사회적 이슈, 여당의 정책위원회에서 “비혼출산 가정에 대한 법률 검토 시작”을 발언한 것을 정책의제화 단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인구변화TF와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을 가족 개념에 포함”하고자 한 것은 정책결정 단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0개월의 기간을 사회이슈기, 정책의제기, 정책결정1기, 정책결정2기로 구분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결정기를 두 시기로 구분한 것은 임시기관인 인구TF의 공식 발표와,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족기본 계획’ 공식 발표가 두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표 3. 새로운 감정점수를 부여한 단어 예시와 댓글 용례

차별점수 부여	품사	단어	예시
100점(고) 추가	명사	유교 조선시대 가부장	- 오랜세월 유교 사상에 길들여진 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결혼안하고 엄마가 되고 싶은 여성이 많으니까 선택권은 줘야하지 않을까요?
	동사	싸우다	- 원수같이 붙어서 싸우는 부모보다 편모가 아이를 정서에 좋다. 걸음로 갖춰진 썩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병들어 간다.
	형용사	충분	- 얼마만의 사랑으로 충분히 좋은 아이로 클 수 있어요. 되려 허구연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게 애들 정서에 더 안좋은 --- 여성의 소득도 이전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아무 문제가 될건 없네~
	동사	힘내다	- 저 분 영상 유포에서 봤는데 진짜 책임감 있는 훌륭한 엄마이자 아빠 였다. 힘내세요!
	명사	박수 소신 순산	-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사유리의 용기있는 결단에 박수 를 보냅니다
부정(고) 추가	명사	섭리 자연 순리 근본 뿌리 윤리	- 솔직히 생각해서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고싶을까? 아이가 엄마아빠 사이에서 출산되는건 괜히 존재하는 섭리 가 아니다...
	명사	장난감 반려동물 소유물	- 자식이 장난감 이나 왜 당신이 한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고 시작하는데? 지금 당신의 판단으로 당신의 그 배에 있는 생명이 인간으로의 삶을 살면서 겪어야 할 탄생의 비하인드를 당신이 감당할수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판단대로만 아버지가 없음을 선택하고 결정짓고 시작해버렸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 이 아니다
	동사	고르다	- 정자를 상품 고르듯이 고르는게 인간윤리에 과연 맞는것인지..
	형용사	엄연	- 그냥 싱글맘이랑 저 케이스랑은 엄연히 다르다. 자기욕심에 의해 자녀를 장난감처럼 낳았네!!!
	동사	버리다	- 저거 허락해 주면 애 좀 키우다가 힘들면 개 버리듯 어디 불고 오는 애들 많을듯.... 뻥하지 뭐...

IV. 분석 결과

1. 시기별 비혼출산 관련 댓글 감성분석

1.1. 전체 댓글 감성분석

전체 시기를 보았을 때 부정적인 댓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일본'(3,069건)이다. 이슈가 된 방송인의 국적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를 '일본', '일본인'으로 지칭하며 한국에서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댓글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2,003건)는 비혼출산 가정에 대한 포용정책의 주체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으로서 자주 등장한다. '페미'(1,165건)는 한

국사회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는 전통적 가족 규범 아래 결혼제도에 편입되고 싶지 않은 여성[3]들에 대한 비난을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기심'(1075건)은 여성의 선택이 '태어난'(1972건) '아이'(15524건)에게 있어서 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혼출산이라는 행위를 이기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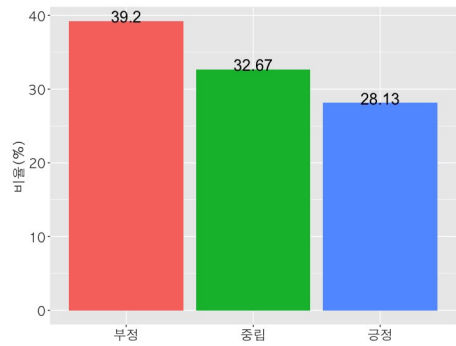


그림 2. 비혼출산 관련 전체 긍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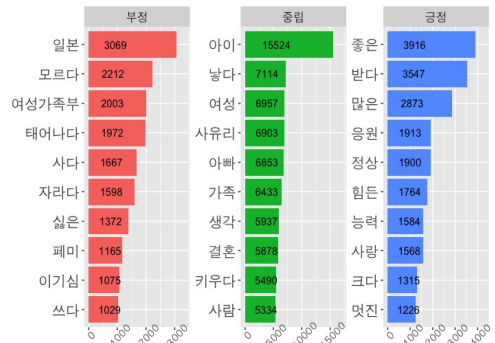


그림 3. 비혼출산 관련 전체 긍정 단어 빈도

긍정적인 댓글에서 나타난 단어들의 특징은 비혼출산 방송인에 대한 '응원'(1913건)과 '정상가족규범'의 반대 의미로서 '능력'(1584건)과 '사랑'(1568건)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출산 및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사랑이라는 것이다.

한편 시기별 긍정 세부 단어와 빈도수는 각 시기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사회이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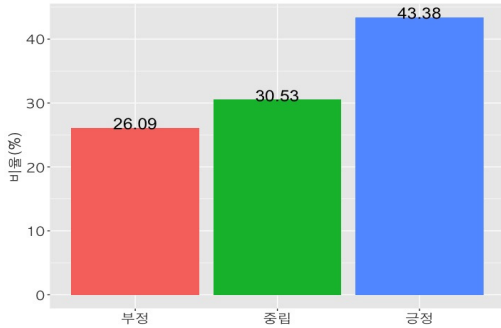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이슈기 댓글 감성 비율

1.3. 정책의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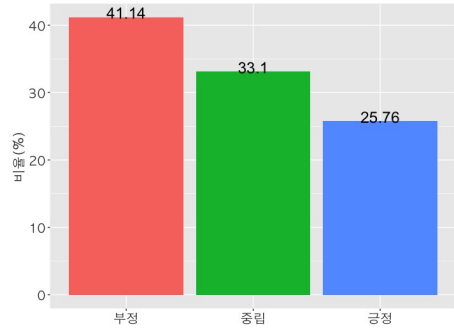


그림 5. 정책의제기 댓글 감성 비율

방송인의 비혼출산 소식이 전해지고, 정책의제화되기 전 단계인 사회이슈기에는 긍정적인 댓글의 비율이 높다(43.38%). 대체로 비혼출산의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 방송인의 행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단어들(‘응원’, ‘멋진’, ‘좋은’, ‘대단’, ‘축하’ 등)이 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댓글에서는 ‘모르다’, ‘태어나다’ 등 아이에 관한 우려와 ‘쉬운’, ‘욕심’ 등 비혼출산 선택에 대한 비판, 정자 기증이라는 방법에 대한 비판(‘사다’)이 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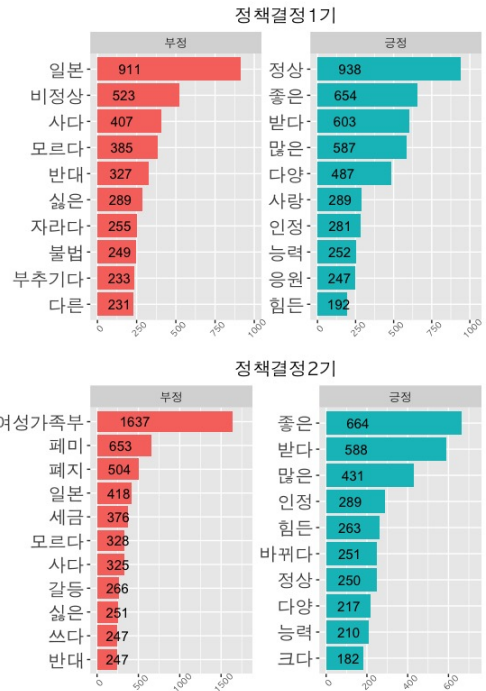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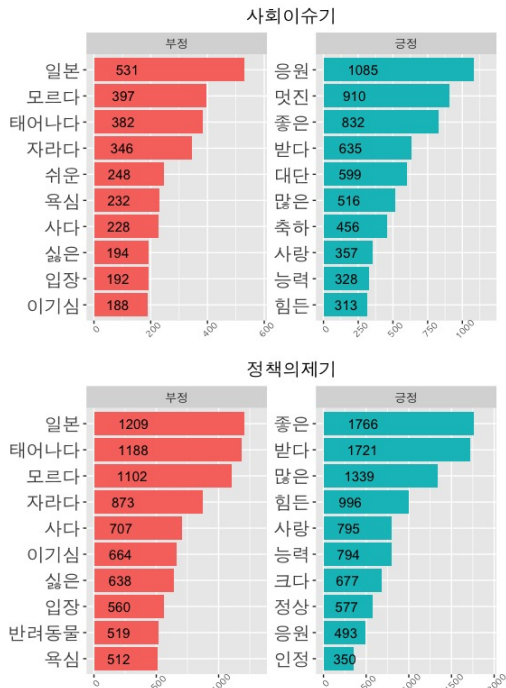


그림 6. 시기별 세부 긍부정 단어 빈도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비혼출산에 관한 법률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혀 정책의제기가 시작되자, 부정적인 댓글의 비율이 확연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사회이슈기 26.09% → 정책의제기 41.14%). 비혼출산이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인 사회이슈기와 유사하게 긍정적인 댓글에서는 방송인의 행보에 대한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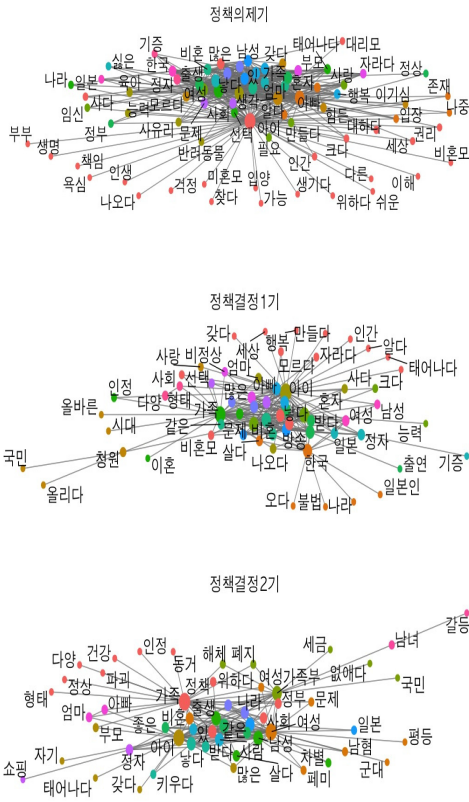


그림 9. 시기별 네트워크 그래프

2.1 전통적 가족 규범

우선 ‘아빠’, ‘정상’, ‘비정상’, ‘능력’, ‘가족’, ‘다양한’, ‘인정’, ‘올바른’, ‘파괴’, ‘해체’ 등의 단어들은 ‘전통적 가족 규범’을 쟁점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 사용되는 단어이다. 사회이슈기에는 ‘아빠’를 중심으로 가족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정책의제기로 접어들면서 ‘정상’과 ‘능력’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정상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촉발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구성형태(어머니와 아버지의 존재)와 양육환경(‘능력’, ‘경제력’)처럼 ‘정상 가족’을 정의하는 요인에 대한 상이한 의견을 표출함을 알 수 있다. 정책결정기에 접어들면서 확장된 가족 개념에 대해 긍정적 댓글에서는 ‘다양한’, ‘형태’, ‘인정’이 같은 의미망을 구성한 반면, 부정적 댓글에서는 ‘반대’, ‘파괴’, ‘해체’가 같은 의미망을 구성하면서, 가족규범에 대한 보다 극렬한 논쟁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2.2 정책적 측면

‘나라’, ‘정부’, ‘대리모’, ‘저출생’, ‘비혼’, ‘부추기다’, ‘장려’, ‘여성가족부’, ‘세금’, ‘폐지’ 등의 단어는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사회이슈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단어는 나타나지 않고, 정책의제기 이후부터 다수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 저출산 해결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어저지만 부리는 여기부는 폐지돼야 한다.”와 같은 댓글처럼 다수의 댓글에서 정부가 비혼출산을 저출생, 비혼의 만연화 현상과 연결하여 해결하려 함을 인식하고 있고, 남성의 비혼출산 방식으로서 대리모 제도를 합법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정책결정기로 접어들자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다수였는데, “정부에서 직접 남녀갈등 조장하더니 다른한쪽에서는 저출산대책 이라고 만들고있네”처럼 여성가족부가 비혼을 장려하고 세금을 낭비하며 남녀갈등을 부추킨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댓글은 나아가 특정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 백래시(성평등에 대한 반발성 공격)의 양상을 띄기도 한다.

2.3. 개인적 측면

‘아이’, ‘태어나다’, ‘멋진’, ‘응원’, ‘대단’, ‘선택’, ‘건강’, ‘축하’, ‘입장’, ‘나중’, ‘이기심’, ‘정자’, ‘기증’, ‘욕심’, ‘반려동물’, ‘권리’, ‘학대’, ‘쇼팽’ 등의 단어는 비혼출산을 선택한 여성개인 또는 아이의 탄생과 삶에 대한 논의로서, 개인적 측면의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선 출산한 여성과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댓글에서는 응원과 지지의 의미가 담긴 단어들 많이 사용하고, 개인의 선택임을 강조하는 반면, 부정적인 댓글에서는 출산한 여성을 ‘욕심’, ‘이기심’ 등의 단어로 비판하고 임신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미가 담긴 ‘쇼팽(정자를 골라 기증받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에 대해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이 아이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소유하려 한다며 비판한다. 개인적 측면의 쟁점은 사회이슈기에 중심 쟁점이 되고, 정책의제기와 정

책결정기로 접어들수록 중심성이 약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중심 쟁점이 정책적 측면으로 많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논의와 한계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로 비혼출산이 촉발된 2020년 11월부터 비혼과 비혼출산 정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관련 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인식을 연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결정단계인 2021년 8월까지 네이버 뉴스의 댓글 데이터를 통해 비혼출산에 대한 대중인식을 분석하여 사회적 논의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기 방송인의 비혼출산은 전통적 가족규범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비혼출산 가정도 '정상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정부차원의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올바른 가족 형태'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었으며, 부정적 댓글의 비중이 확연히 늘어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부정적 댓글이 계속해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남녀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통적 가족규범으로 포함되지 않는 동성결혼 또한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및 혐오 표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남성의 비혼출산 형태로서 '대리모'를 합법화하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사회이슈기에는 비혼출산을 개인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정책의제기로 접어들면서 부정적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비혼출산 가정 또한 '정상가족'으로 포함시키려는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전통적 가족 규범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비혼출산은 대리모, 동성결혼, 남녀갈등 등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고 극심한 갈등의 중심이 되는 사안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치관 문제가 결부된 비혼출산 정책에 대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긍정적 문맥과 부정적 문맥에서 모두 사용되는 단어의 경우 '중립'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중립 문장이 다수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감성사전 재정의의 단계에서 빈도수 상위에 나타난 단어 300여 개에만 긍정 및 부정 점수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긍정적 문맥과 부정적 문맥 모두에서 사용되는 단어도 중립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맥락을 살펴보면 실제로 긍정적인 입장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중립문장으로 구분된 문장이 다수 등장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저 아이는 진짜 선택 받은 아이네”, “한국여성에게도 이 사례가 많이 활성화되길 기원합니다” 등의 긍정적인 맥락의 문장과 “아이의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을 생각은 해봤을까”, “당신들이나 남편없는 아이 낳아라 난 제대로된 가족에서 계속 살테니” 등의 부정적인 맥락의 문장이 중립문장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향후연구에서는 비혼에 대한 감정사전을 정교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혼출산에 관한 인식은 비혼, 저출산, 가족개념, 결혼 및 자녀가치관 등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나 이러한 주제들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에는 분석기법상 한계가 있었다. 다음에는 구조적 등위성 분석, 토피코모델링 등을 통해 댓글의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네이버 뉴스 댓글만 선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부정적 의견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뉴스 사이트의 댓글을 수집하여 뉴스를 발행한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2020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연구보고서, 2020.
- [2] 통계청, 2020 사회조사, 통계청 연구보고서, 2020.
- [3] 심경미, '비혼(非婚) 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4] 신지수, [단독] 방송인 사유리, 홀로 엄마가 됐다...“꿈이 아닐까,” KBS, 2020-11-16.
- [5] 이소영,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6] 김나운, 이수민, “비혼 출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론, 제112-2호, 2021.
- [7]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김주현, 정윤정,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8] 강유진, “성인남녀의 비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가족가치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pp.241-256, 2017.
- [9] 호정화,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7권, 제4호, pp.25-59, 2014.
- [10]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6.
- [11] 이혜원, 주영아, “비혼여성의 결혼가치관 관련요인 탐색: 결혼이미지, 심리적 적응,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1권, 제3호, pp.1133-1148, 2020
- [12] 관계부처합동,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2021.
- [13] 강재원, 김선자, “인터넷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의 효과 연구: 이슈의 관여도와 의견의 일치성 여부를 고려해서,”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2호, pp.143-166, 2012
- [14] 조화순, 이병재, 김승연, “인터넷 뉴스 댓글을 통한 정치커뮤니케이션,” 한국정치학회보, 제52권, 제5호, pp.115-139, 2012.
- [15] 최하영, 이재림, 진미정, “친밀한 파트너십과 가족정책 관련 뉴스기사 및 댓글에 대한 토픽모델 분석,” 한국가족학회, 제32권, pp.29-60, 2020.
- [16] E. Oster, E. Gilad, and A. Feigel, “Internet comments as a barometer of public opinion,” EPL (Europhysics Letters), Vol.111, No.2, 2015.
- [17] 박수민,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 가족과 문화, 제29권, 제4호, pp.94-121, 2017.
- [18] 이정하, 박정윤, 윤나나,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3권, 제2호, pp.183-121, 2017.
- [19] 김미숙, “중소도시 중년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청주시 경우,” 한국인구학, 제39권, 제4호, pp.103-152, 2016.
- [20] 김지유, 조희선, “성인 비혼 남녀의 비혼 유형 관련요인 탐색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3권, 제3호, pp.201-228, 2018.
- [21] 김영신,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5권, 제1호, pp.27-58, 2011.
- [22] 이창순, “한국사회 비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과학연구, 제38권, 제3호, pp.49-7, 2012.
- [23] 이순미, “비혼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변형과 젠더 차이,” 지역과 세계 (구 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3호, pp.1-30, 2016.
- [24] 이재경, 김보화, “2, 30 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1권, 제4호, pp.41-85, 2015.
- [25]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제2호, pp.135-144, 2010.
- [26] 이경아, *자발적 비혼 여성의 삶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27] 한혜림, 이지민, “30-40 대 자발적 비혼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8권, 제2호, pp.201-214, 2020.
- [28] 김민지, 김동현, 김현정, 천성문, “비혼 중년여성의 홀로하기를 통한 자기성찰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2호, pp.285-310, 2019,
- [29] 권문영, “비혼 여성의 소외와 노후 불안-30~ 40 대 비혼 여성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8권, 제2호, pp.47-86, 2018.
- [30] 김순남, “이성에 비혼여성으로 살아가기: 지속가능한 비혼, 젠더, 친밀성,” 한국여성학, 제32권, 제1호, pp.181-217, 2016.
- [31] 이성은,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2호, pp.73-112, 2015.
- [32] 김현경, 이민영, “자발적 비혼모의 선택 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4권, 제12호, pp.5-36, 2008.
- [33] 양민혁, 정인선, 김용채, 조완섭, “SNS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대학 인식 및 선호도 분석,”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논문지, 제1권, pp.1-13, 2014.

- [34] 오평화, 황병연, “트위터의 감정 분석을 통한 실시간 장소 추천 시스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1권, 제3호, pp.15-38, 2016.
- [35] 채인영, 이영민, 유기윤, 김지영, “소셜 미디어 텍스트를 이용한 장소 선호도 분석 기법,”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제25권, 제4호, pp.55-64, 2017.
- [36] Liu, Bing, Mingqing Hu, and J. S. Cheng, “Opinion Observer,”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pp.342-351, 2005.
- [37] R. W. Cobb and C. D. Elder, “The politics of agenda-building: An alternative perspective for modern democratic theory,” The Journal of Politics, Vol.33, No.4, pp.892-915, 1971.
- [38] 조희형, “가족'이 다양해진다...’비혼 동거'도 법적 인정,” MBC, 2021-01-25.

저 자 소개

허 세 영(Seyoung Huh) 정회원



- 2021년 2월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사)
- 2021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석사과정)

〈관심분야〉 : 미디어 이용자, 소셜 인플루언스, 설득커뮤니케이션

김 초 원(Cho-Won Kim) 정회원



- 2021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 2021년 2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석사과정)

〈관심분야〉 : 복지정책, 사회정책, 정책변

정 안 용(Anyong Cheong) 정회원



- 2019년 10월 : Taylor's University, International Hospitality Management(학사)
- 2021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석사과정)

〈관심분야〉 : 미디어, 관광 빅데이터, 호텔경영

이 새 봄(Sae Bom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경희대학교 경영정보시스템학과(경영학석사)
- 2016년 2월 : 경희대학교 경영정보시스템학과(경영학박사)
- 2017년 1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빅데이터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 Technostress, 텍스트마이닝, e-Commerce, 인공지능